

소상공인과 경제극복 맞손 농촌관광거점 중심지로 육성

임실군, 지역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6월까지 확대·시장 점포 임대료 감면 등 시행

임실군이 지역내 소상공인과 손을 맞잡고 코로나 위기 경제극복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군은 한시적으로 운영한 임실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6월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민수당도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임실군이 지역내 소상공인과 손을 맞잡고 코로나 위기 경제극복에 두 팔을 걷어부쳤다.

앞선 5일 임실상인회장을 비롯한 3개 전통시장,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소상공인 대표 간담회를 갖고, 지원정책 방안에 함께 머리를 맞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군은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임실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기간을 6월까지 확대 운영한다.

상반기 중에 상품권 발행을 120억원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민수당 30억원도 전액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대상을 연 매출 3억원 이내로 확대 운영하며 경영자금 융자금을 3천만원까지 적극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3%로까지 지속적으로 보전한다.

또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위해 방역소독을 월 1회에서 주 3회로 대폭 늘리는 한편, 소규모 영세마트 등에

손소독제도 지원한다.

공설시장 점포 임대료도 3개월분 50%로 감면하여 점포당 최대 62만원의 절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 내 식당가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군청 구내매점을 휴업하고, 1일 배식인원 50% 줄이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 되는 시기에 맞춰 소상공인의 활성화 대책으로 시설개보수 지원금(500만원 한도) 및 소상공인 관련 개별사업 지원도 검토하고,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고객유치에도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임실상인회와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영업매출이 크게 감소하여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지만, 행정이 적극 나서서 침체된 상권 활성화에 앞장서 주고 있어 큰 위트가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심민 군수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어 걱정이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동편제마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공모사업 최종 선정

남원시 운봉읍 동편제마을이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2020년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남원시는 동편제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걸쳐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농촌마을이 보유 중인 고유한 자연과 문화자원을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 농촌관광 자원을 개발, 마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남원시에서는 동편제 마을에 3,560㎡의 소나무순림 식재와 숲 경계 부분의 축대를 정비해 동편제 소리솔 숲을 복원하고, 마을입구 450m를 산책로 정비하기 위해 야간경관 조명 등 설치한 숲비람 길을 조성한다.

해발 470m 고원분지에 위치해 있는 동편제마을은 150년 이상 된 소나무 92주가 동구 숲 형태를 이루고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동편제

마을 소나무 숲은 조선 숙종시대 때부터 우거졌다.

또한 이 마을은 산양치즈체험, 소시지가공체험, 판소리 체험 등 다양한 관광체험거리가 풍부해 지리산 둘레길 2코스와도 연계되어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특히, 마을은 조선전국의 단초를 만든 황산대첩비지와 판소리의 시조 가왕 송흥록과 명창 박초월의 생가가 위치해 있어 농촌관광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2011년 농촌체험휴양마을, 2015년 전라북도 농촌관광거점마을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곳 마을에는 단체숙박동 12실 구비로 동시에 50명 숙박이 가능하고, 1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세미나와 음식체험을 할 수 있는 식당 등을 갖추고 있어 차별화된 남원의 농촌관광 거점 역할을 선도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남원시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공모에 2년 연속 선정되며 50대 이상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사업 참여자 46명을 모집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예산은 작년대비 5억5천2백만원이 늘어난 8억1천6백만원이며,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자리 형태로 제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신중년들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시는 인구유입에 기여하고자 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모집할 예정이지만, 관외 거주자의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소지를 남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며, 급번 모집분야는 지역서비스 등 3개 분야 31개 사업 총 43명으로,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이거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 가능하고, 희망지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3월 18일까지 남원시 일자리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모든 군민 대상 마스크 무상 보급

순창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사재기와 품귀현상으로 구매에 피로감을 느끼는 군민들을 위해서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군은 최근 자체적으로 확보한 마스크를 활용해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배부하여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1주일에 1인 1매씩 보급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마스크 공급량을 조절하며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 구매처를 정해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서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군이 직접 나선 것이다.

군은 앞으로 예비비로 확보한 30억원을 활용해 마스크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지속 보급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체계산 출렁다리 27일 정식 개통

코로나19 지역내 유입 우려 최소 규모로 개통식 예정

순창군의 대형 관광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인 '체계산 출렁다리'가 그 위용을 드러내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출렁다리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에 완료되어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국도 24호선을 오가는 도시민들의 문이 아저지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체계산 출렁다리 정식 개통은 오는 27일에 한다고 밝혔다. 군은 당초 개통식에 맞춰 문화공연과 행사 등을 준비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지역내 유입을 우려해 최소한의 규모로 개통식을 치를 예정이다.

체계산 출렁다리는 현재까지 국내 무주담 현수교 중 가장 긴 270m를 자랑하며, 그 높이 또한 가장 낮은 곳이 지상으로부터 75m, 가장 높은 곳이



90m에 이른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간 체계산 출렁다리 공사는 현재 다리건설과 출렁다리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공사를 마무리짓고, 부대시설인 주차장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주차장 규모는 대형버스를 비롯해 승용차 등 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관광객들의 주차격도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렁다리를 구경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순창 터미널에서 체계산 출렁다리까지 군내버스가

하루 15회 이상 오가고 있어 교통편은 걱정 안해도 된다.

아울러 순창군이 시티투어 버스로 준비중인 '순창 풍경버스'도 체계산 출렁다리를 운행코스로 정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등 출렁다리를 순창의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여기에 군은 관내 농업인이나 단체를 참여시켜 농·특산물 판매장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어서 관광도시 순창 건설은 물론 농업인 소득 확대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체계산 출렁다리는 군정비전인 500만 관광객 돌파에 일등공신이 될 대표 프로젝트"라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규모 행사가 연기되고 있지만 더는 늦추기 어려워, 개통을 진행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마스크 5부제 정착 돕기 위한 인력 지원

남원시가 마스크 5부제 판매에 따라 약국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관내 39개 소 약국을 대상으로 9일부터 약국 1개소 당 남원의용소방대원과 시 직원 1~2명을 배치하는 인력지원에 나섰다.

지원인력은 마스크 5부제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질서유지 및 번호대기표를 배부하는 등 공적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돕는다.

이는 정부가 지난 5일 내놓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년생, 화요일 2·7년생, 수요일 3·8년생, 목요일 4·9년생, 금요일 5·0년

생인 사람만 약국에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격은 장당 1,500원이다.

1주일에 1인당 2매까지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고,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주일에 1인당 2매 판매를 적용하지만,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까지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여 그때까지는 하루 1인 1매만 살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확대간부회의 개최... 코로나19 대응 최선

남원시는 9일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 19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최일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은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 19 지역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지금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주에도 읍면동 주민들에게 3만 2천장의 마스크를 긴급 공급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19 확산세가 아직도 감소되지 않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상황종료 시까지 힘을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시설 소재과악을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모든 종교단체의 행사나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직접 방문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시장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게임방, 노래방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지시와 사설학원 및 독서실 대상으로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